

##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요약문

최용준 한동대학교 교수

###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Herman Dooyeweerd(1894–1977), a Dutch Christian philosopher, tried to integrate faith and scholarship from the biblical worldview. Succeeding Abraham Kuyper(1837–1920), Dooyeweerd developed his so-called ‘transcendental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in order to explain why scientific thinking can never be neutral but is integrated with religious faith. Because the Almighty Creator created all things with His wisdom, scholarship is the human activity to honor God and serve our neighbors by rediscovering the order of creation. However, due to the fall of man, these academic activities were separated from faith and humans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mselves, which eventually caused various problems due to self-contradiction. Dooyeweerd points out this as reductionism and idolization of thoughts through the absolutization of one aspect. However, through the redemption of Christ, the ultimate solution is made possible and science can be newly integrated with faith through the regenerated reason. After explaining the sphere-sovereignty and universality of modal aspects, he analyzed how theoretical thinking is possible through theoretical antithesis and synthesis. Eventually, when the human heart, the center of man, is born again in Christ and directs again toward the Creator, integration is possibl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re also beneficial to mankind. Finally, when the kingdom of God will be consummated, the process of integration would also be perfected just like jewels in the walls of New Jerusalem. In conclusion, it is discussed how Dooyeweerd’s insight has been developed by his successors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his legacy in the Korean context.

Key Words: Herman Dooyeweerd, faith, scholarship, integration, Christian worldview

## I. 서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독교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과 전공하는 학문 분야를 분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통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관, 즉 창조, 타락, 구속 및 완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가 발전시킨 ‘이론적 사고에 대한 선험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기독교 세계관 및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적용하고 고찰하여 통합하려고 노력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해 연구한 기독교자로는 미국의 로버트 해리스(Robert A. Harris)가 있다(Harris, 2004, 2014, 최용준, 2013). 필자는 도여베르트에게 큰 영향을 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어떻게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그의 다양한 저작들을 통해 고찰한 논문을 최근에 발표했으며(최용준, 2021). 동시에 도여베르트의 생애와 전반적인 사상에 관한 논문도 발표했다(최용준, 2005).

본 논문은 카이퍼가 깎깁의 신학 사상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한 신칼빈주의(neo-Calvinism) 사상을 이어받은 도여베르트가 소위 그의 독특한 기독교 철학을 통해 어떻게 학문적 사고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신앙과 통합될 수밖에 없는지 기독교 세계관의 네 요소인 창조, 타락, 구속 및 완성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그 후 그가 남긴 영향은 무엇이며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평가함으로 결론을 맺겠다.

## II.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 1. 기독교 세계관의 네 요소

먼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카이퍼는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세계관(Weltanschauung)’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용어인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levens-en wereldbeschouwing)’으로 번역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며(Kuyper, 1902: 36) 이를 창조, 타락, 구속 및 완성이라는 네 요소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반면에 도여베르트는 주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요소만 기독교적 근본 동인으로 언급하면서 완성을 구속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다(Dooyeweerd, 1953: 60, 1957: 169). 하지만 본 논문에서 필자는 완성이 구속과

연속성도 있으나 확실히 다른 부분도 있으므로 네 요소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최용준, 2019: 185-206).

## 2. 창조: 신앙과 학문의 통합

성경적 창조관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고 본다(창 1).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축복을 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올바르게 다스리면서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존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창 1:27-28; 2:15).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이 통합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학문이란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창조법칙을 재발견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이 피조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이며 이것은 이미 창조 신앙을 전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러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 책임의식을 가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활동임을 알 수 있다(창 2:19-20).

따라서 카이퍼는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하는 근거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에 국가와 교회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유 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하여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영역 주권(領域 主權,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이라는 제목으로 개교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따라서 각자 개별적인 주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만유의 주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골 1:16)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한 인치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은 없음을 강조했다(Kuyper, 1880, 박태현, 2020). 즉 학문의 영역도 궁극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으므로 당연히 학문과 신앙은 우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엡 1:10) 안에서 통합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자유 대학교도 양자가 통합된 기독교 대학이 되길 희망했다.

카이퍼의 사상을 계승한 조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도 학문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았고(Bavinck, 1897), 도여베르트는 이 점을 더욱 발전시켜 학문은 본질상 결코 종교적으로 중립적으로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Dooyeweerd, 1935: 11, 1953: 3-4, Choi, 2000).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설명했는가?

도여베르트 사상의 출발점도 성경의 창조적 세계관에 근거한다. 그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철학적 이념인 ‘의미(意味, zin: meaning)’는 바로 이 창조관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Arche: Origin)이시며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나아가 만물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 이런 점에서 도여베르트는 모든 실재를 ‘의미’라고 규정한다(Dooyeweerd, 1935: 3-4). 피조물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피조물 자체가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가 이를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자충족적(self-suf-

ficient)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God as the meaning-Giver)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 즉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Alle zin is uit, door en tot een oorsprong)”는 말씀에 만물의 과거적 기원, 존재의 현재적 근거 그리고 미래의 궁극적 목적이 제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Dooyeweerd, 1935: 11).

도여베르트 이후에 자유 대학교에서 현대철학 교수였던 요한 판 데어 후븐(Johan van der Hoeven, 1930-2015)은 “도여베르트가 이 ‘의미’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도입하는 이유는 희랍 철학에서 나온 ‘존재(存在, being)’라는 단어가 가장 포괄적인 단어로 더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며 나아가 현대적 삶의 허무성과 무의미한 경험들이 증가하면서 ‘의미’에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고 나아가 ‘소외’되어 가는 실존적인 상황을 직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Van der Hoeven, 1987: 137-138). 또한,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철학 입문서를 저술한 깔스베이크(Leendert Kalsbeek, 1903-1995)도 도여베르트가 ‘의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인간의 이성 및 철학적 사고의 자율성을 절대시한 전통적인 내재철학(內在哲學, immanent philosophy)에서 사용된 ‘실체(實體, substance)’라는 형이상학적 용어가 너무 독립적이므로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Kalsbeek, 1975: 311, 황영철, 1981, Van Woudenberg, 1992: 208-210).

나아가 도여베르트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피조계는 질서 있고 구조화된 전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완전한 지혜로 질서 있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이 구조적 질서를 처음에는 ‘법이념(wetsidee: cosmonomic idea 또는 the idea of law)’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원래 법철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법’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 용어를 수정하여 세 가지 ‘선형적 기본 이념(transcendentiaal grondidee: transcendental ground idea)’이라고 불렀다(Dooyeweerd, 1953: 68ff.). 여기서 ‘선형적’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이념들이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사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 이념은 만물의 ‘기원’이다. 물론 여기서 궁극적인 기원은 만물을 그의 주권적인 뜻대로 지으신 창조주이며 모든 피조물은 이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두 번째 이념은 모든 현상의 다양한 면들과 양상들의 ‘뿌리가 되는 통일체’(root-unity)이며 의미의 총체(meaning-totality)이다. 다시 말해 모든 현상이라는 구슬들을 하나로 꿰어 초점을 맞추게 하는 통일점을 뜻한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양한 주장들을 펼쳤다. 이에 대해 도여베르트는 이 통일점은 제2의 아담이며 모든 시간내적(temporal) 실체의 종교적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각 개인은 존재의 신앙적 중심 또는 집중점인 ‘마음(heart)’을 통해 이 의미의 총체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이념은 ‘우주적 시간으로 연결된 의미의 다양성’(meaning diversity in

the coherence of cosmic time)이다. 의미의 다양성이란 의미의 다양한 양상들과 개체 구조들을 뜻하며 이 두 가지는 시간(time)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모든 학문은 이러한 이념을 형성하는 전이론적 전제들(pre-theoretical presuppositions)에 의존되어 있다고 본다.

나아가 도여베르트는 창조세계에서 두 종류의 기본 구조, 즉 '개체 구조(individuality structure)'와 '양상 구조(modal structure)'를 구별한다. 전자는 창조로 인해 주어진 구체적인 사물의 법적 질서를 뜻하며, 후자는 각 의미의 모멘트(moment), 즉 예기(anticipation), 회기(retroscipation) 그리고 의미의 핵을 가진 특정 양상을 의미한다. 그는 폴렌호븐(D.H.Th. Vollenhoven, 1892-1978)과 함께 이 실제의 양상 이론을 발전시켰는데(Stellingwerff, 1992: 79), 처음에는 각기 독특한 법칙들에 따라 지배받는 14가지의 '법칙 양상들'(wetskringen: law-spheres, 다른 말로 modal aspects 또는 modalities)을 구별했으나 나중에는 15가지로 확대했다. 즉 수적, 공간적, 운동적, 물리적, 생물학적, 감각적, 분석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미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신앙적 양상이다.

이 양상들은 의미의 모멘트로서 예기 및 회기를 가진다는 것은 이전 양상은 이후 양상의 기초가 되며, 이후 양상은 이전 양상을 개현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양상들은 상호 환치될 수 없으며(irreducible) 실재는 이러한 존재 양식의 다양성 내에서 가능하다. 즉, 각 양상은 자기 위치가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데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 질서가 뒤바뀌면 내적 모순인 배율(antinomy)이 일어나며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성구(마 4:4)를 양상 구조로 설명하면 생물적 양상보다 신앙적 양상이 뒤에 있어 후자가 전자를 인도하며 그 의미를 심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양상과 윤리적 양상을 비교할 때도 윤리적으로 잘못이라면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도여베르트는 각 양상이 서로를 지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정합성(coherence)을 이루어 의미의 총체성을 지향하고 다시 이것은 만물의 기원을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리처드 러셀(R. Russell)은 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잘 보여준다(Russel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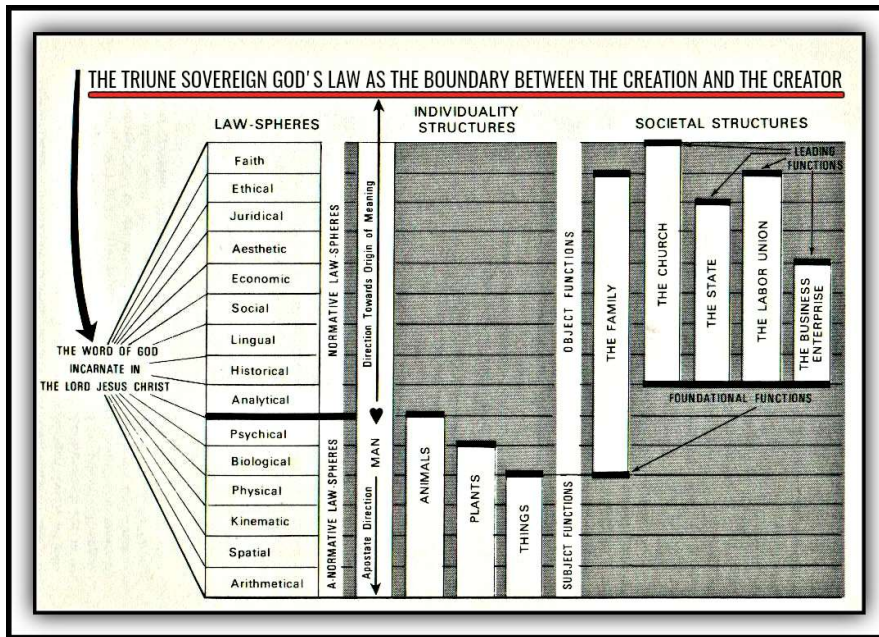


Figure 1. Dooyeweerd's Theory of Modal Aspects

(1.bp.blogspot.com/-hrLqdaqxyAg/WiRmgPzxXeI/AAAAAAAAAFo4/HTNcyZe\_fkYprS3 BCt94jaDykMSlkLjswCLcBGAs/s1600/modal\_aspects\_4.jpg)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어베르트가 단순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사고와 분리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분석 없는 일상적 삶의 경험을 말하지만, 후자는 시간내적 실체를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 가령 여기에 볼펜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볼펜은 하나의 개체 구조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양상 구조로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관점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직 양상으로 보면 이 볼펜은 하나임이 강조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볼펜의 역사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사회적 양상에서는 볼펜의 사회적 기능이 주된 관심사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볼펜의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미적인 관점에서는 이 볼펜의 디자인에 관심을 두겠지만 윤리적인 양상에서는 이 볼펜이 누구의 것이며 다른 사람이 훔쳐서는 안 됨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양상 구조는 한 개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도어베르트의 사상은 나중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불가분 리적임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 3. 타락: 신앙과 학문의 분리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이러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분리되고 왜곡되어 버린다. 가령

‘세 가지 선형적 이념들(three transcendental ground ideas)’에서 첫 번째 이념인 만물의 ‘기원’에 대해 진화론자는 창조주보다 ‘우연(Chance)’이라고 본다. 실제로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운 기독교 학생들은 이처럼 신앙과 학문이 분리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양자를 통합해야 한다는 강의를 들을 때 처음에는 매우 의아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희랍 철학도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탐구했지만, 피조물 중 하나를 절대화했으며 이 세상 만물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이 ‘법’ 자체를 절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세계관에는 ‘도(道)’ 또는 ‘리(理)’라는 단어가 많이 있다. 가령, 천도교(天道敎), 천리교(天理敎), 도교(道敎)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만물의 ‘도’ 자체를 절대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도여베르트는 그 법은 반드시 그 법을 제정한 분(law-Giver)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념인 만물의 통일점에 대해서도 인간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준거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지향하므로 올바른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와 실패를 낳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이가 도여베르트의 양상 구조 이론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 하나의 학문이나 양상을 절대화하는 환원주의(reductionism)의 위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즉, 모든 이즘(-ism)-가령 물질주의(materialism)-은 그 양상을 기원의 위치에 놓게 되며 이처럼 실제의 한 면만을 절대화하게 되면 다른 면들을 간과하게 되어 결국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의 우상화라고 그는 예리하게 지적한다. 이러한 통찰력은 가령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나 히틀러의 나치즘과 같은 사상적 오류들을 비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의 앤드류 바스덴(Andrew Basden)은 도여베르트의 양상 구조 이론을 인용한 아래 도표에서 그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www.researchgate.net/profile/Andrew-Basden/publication/266279899/figure/tbl3/AS:669554795618304@1536645711017/Absolutization-of-Aspects-and-Harm-that-Results.png](http://www.researchgate.net/profile/Andrew-Basden/publication/266279899/figure/tbl3/AS:669554795618304@1536645711017/Absolutization-of-Aspects-and-Harm-that-Results.png))

Table 1. Andrew Basden’s Example of ‘Ism’ and Example of Harm

#### 4. 구속: 회복된 신앙과 학문의 통합

타락으로 왜곡된 신앙과 학문의 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지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말한다(엡 4:13).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여베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그의 철학을

Aspect:	Example 'Ism'	Example of Harm
Quantitative		Over-emphasis on figures, league-tables
Spatial		(Stasis)
Kinematic		(Slavery to "must keep moving")
Physical	Materialism	Ignoring mental and social realities.
Biotic / organic	Evolutionism	Life becomes competitive.
Sensitive / psychic	Psychologism	Slavery to feelings.
Analytical aspect	Rationalism	Oversimplified arguments expel wisdom.
Formative aspect	Functionalism, Utilitarianism	Drivenness, over-work.
Lingual aspect		Swamped by documentation, email.
Social aspect	Socialism	Political correctness dominates.
Economic aspect	Capitalism	Everything reduced to money; unconcern for the poor.
Aesthetic aspect	Aestheticism	Snobbery; The enjoyments of the rich precede the needs of the poor.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로서의 법(法, wet: law)과 그 법에 종속된 모든 피조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과 그 종교적 통일성과 의미의 정합성 내에서 시간내적 다양성을 따르는 개별적 종속체의 기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주권적인 창조적 의지이다. 우리의 우주는 법칙면과 종속면 모두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이다. 전자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절대적 경계이며 모든 피조물은 본래부터 법칙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법칙의 제정자'이다... 그리스도는 우주적 의미의 뿌리 이시며 충만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안에서 모든 종속적 개체는 그 의미의 충만함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의 시간내적 우주는 어떠한 것도 그분을 벗어날 수 없다... 의미의 양상적 다양성에서의 법은 거기에 종속된 개체 구조의 보편타당한 결정 및 제한이다. 종속체란 sujet<sup>1)</sup>로서 법칙 영역들의 양상적 다양성의 법칙에 종속된다. 종속체가 없는 법이 없고 그 반대도 없다(Dooyeweerd, 1953: 507-8).<sup>2)</sup>

나아가 도여베르트는 각 양상에서도 법칙면과 종속면이 있다고 말한다. 가령 경제적인 면에서 불펜의 생산은 경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경제적 양상의 법칙면이며 불펜은 그러한 양상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가장 심원한

- 1) 불어로 subject라는 뜻이며 도여베르트가 만물의 의미성과 종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용어이다.
- 2) 여기서 '경계'라는 용어는 공간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도 피조계에 속하기 때문이다(Van Woudenberg, 1992: 43).



본질 및 궁극적 내용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분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종속적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Kalsbeek, 1970: 71).

그러므로 법-종속의 관계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앞에서 매우 소중하며 본질적 의미로 충만함을 뜻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친밀하게 내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창조주는 법을 제정하셨기에 그 법을 초월하며 그 법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신실함으로 그 법을 지키시는 동시에 그 법에 종속된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도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 활동을 하여 이 주어진 법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적용할 때 창조주의 지혜를 닦아가는 것이다.

양상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각 양상이 시간 내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도여베르트는 설명한다. 따라서 양상들은 모두 시간의 양상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것을 그의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우주적 시간은 다양한 시간-양상들에서 “자신을 표현한다.”(Dooyeweerd, 1935: 66, 1953: 101-102). 도여베르트는 이것을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스펙트럼의 일곱 가지 색으로 분리되는 이미지로 설명한다. 가령, 산수 양상은 전후(earlier and later)라는 회기될 수 없는 시간 질서에 의해 규정되며, 공간적 양상은 동시성(simultaneity)에 의해 제한되고, 운동적 양상에서 시간은 운동의 연속으로 특징 지워지며, 분석적 양상에서 시간은 논리적 전후(prius and posterius)의 동시성에서 표현되고 경제적 양상에서 시간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Kalsbeek, 1975: 154-156.).

각 양상은 그 자신의 독특한 법칙으로 질서 지워지고 결정된다. 그래서 도여베르트는 양상들을 ‘법칙 영역들’이라고도 불렀다. 분석적 양상에서 신앙적 양상까지를 도여베르트는 ‘문화적인 면’이라고 부르며 그 법칙들은 ‘규범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법칙들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고’, ‘실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법칙들은 지켜질 수도 있고 어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문화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사람이 각 양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때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개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는 파괴적이 되고 결국 헛수고로 돌아간다. 분석적 양상 이하 양상들의 법칙들은 ‘자연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법칙들은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에 대한 도여베르트의 사상이다. 1932년에 그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성경의 잠언 4장 23절과 연결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피조물의 초시간적인 뿌리는 시간내적인 실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추론적 기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뿌리인 마음에 있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도여베르트에게 있어 ‘마음’은 모든 양상을 초월하는 집중점 또는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심적인 ‘관계’, 즉 인간의 근원(Origin)과의 관계(religio)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 종교(religion)의 뜻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절대적인 근원을 향한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전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 학문은 실제의 한 양상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가령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물리적인 면만 집중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모으고 체계적,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물리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법칙들을 연구한다. 신학은 계시인 성경에 기초하여 신앙과 관련된 각 분야(조직신학, 성경 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이처럼 각 양상은 해당 학문의 대상으로 그 자신의 독특한 법칙들에 따라 질서 지워지고 결정된다. 따라서 상호 환치될 수 없는 각 양상의 질서를 그는 '영역 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sphere sovereignty)'의 원리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가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을 우주론적 원리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 각 양상은 그 양상의 특징을 규정하는 '의미의 핵(meaning-kernel)'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생물적 양상의 의미의 핵은 생명력(vitality) 혹은 생명(life)이다. 다음 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보여준다.

Table 2. Sciences per aspect

Aspect	Meaningfulness	Example science(s)	Some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Quantity, amount	Arithmetic, statistics, algebra	Mathematical proof, computation
Spatial	Continuous extension	Geometry, trigonometry	Geometric or trigonometric proof
Kinematic	Movement	Kinematics, phonometry	Calculus
Physical	Energy + mass	Physics, chemistry, materials science, geology	Laboratory experiment, with physical reasoning
Biotic	Life functions	Life sciences, physiology, biology, ecology	Greenhouse experiments, field studies, taxonomic analysis
Sensitive	Sense, feeling, emotion	Psychology (behaviourist), sensory sciences.	Stimulus-response trials, control groups, etc.
Analytical	Distinguishing	Logic, cognitive psychology	Logical proofs, brainstorming
Formative	Shaping, creativity; history, technology	“Sciences of the artificial,” design science	Game playing, construct + test
Lingual	Symbolic signification	Linguistics, semiotics, hermeneutics	Hermeneutic analysis
Social	Social interaction and institution	Social sciences	Surveys, interviews analysed hermeneutically
Economic	Frugal use of resources	Economics, management science	Surveys analysed statistically
Aesthetic	Harmony, fun	Aesthetics	Studies of sensibilities
Juridical	Due; retribution, rights, responsibilities	Legal science, jurisprudence	Case review
Ethical	Self-giving love	Ethics	Attitude studies
Pistic	Vision, aspiration, commitment, creed, religion	Theology, some anthropology	Interpretation of sacred writings, apologetics

(brill.com/view/journals/phir/84/2/23528230\_084\_02\_s001\_i0001.jpg)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도여베르트는 각 법칙 영역에는 다른 양상을 지향하는 의미의 모멘트, 즉 예기와 회기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을 통틀어 양상의 '유추(analogy)'라고 부르며 이것을 양상의 '영역 보편성(universaliteit in eigen kring: sphere-universality)'이라고 불렀다. 즉, 각 학문 영역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동시에 고립되지 않고 시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보편성을 가진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령 재판관이 법정에서 피고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듯 법적 양상도 윤리적 양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어베르트는 궁극적으로 학문과 신앙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이것을 이론적 사고의 대립(antithesis)과 종합(synthesis)으로 설명한다. 즉 그는 학문적 사고와 지식이란 비논리적 양상들과 논리적 양상 간의 대립이 이론적 종합에 의해 획득된다고 말한다. 가령 생물학(biology)은 생물적(bio) 양상과 논리적(logical) 양상이 서로 대립한 후 종합될 때 성립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종합이 일어나는 곳은 역시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다. 다시 말해 학문의 주체는 인간이며 그 중심인 마음에서 학문적 지식이라는 종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 또한 자충족적(self-sufficient)이지 않으므로 그 궁극적 기원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원이 성경적인 창조주일 경우 각 학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과학적 물질주의 등을 낳게 되며 이것은 결국 사상적 위상이 된다고 도어베르트는 예리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 가령 노벨이 아무리 평화적인 목적으로 연구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도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살인적인 무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도어베르트는 인간 존재의 종교적 뿌리 및 집중점으로서 ‘마음’의 중심적 의미를 강조한다. 이 마음은 항상 기원에 의존하며 그 기원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고 이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학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어베르트는 학문적 사고(思考)란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 기원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은 만유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거듭난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창조 질서 및 영적 법칙들을 연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도어베르트는 우리의 학문 활동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신앙적 전제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학문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그 학문에 내재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이론적 사고의 선험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이라고 부른다.

나아가 도어베르트는 카이퍼가 말했던 기독교적 원리와 비기독교적 원리 간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antithesis) 사상을 계승하여, 성경적 근본동인(根本動因, ground motive)과 비성경적 동인들 간에는 분명한 영적 대립이 있음을 명쾌하게 지적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도어베르트는 소위 일반 은총(common grace)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대화하며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학문적 공동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첫 번째 주저인 『법사상 철학』(De Wijsbegeerte der Wetsidee, 1935-36)를 수정, 보완하여 학문적 사고에 필요한 조건들 또는 전제들에 관한 탐구로서 이론적 사고에 대한 선험적 비판을 발전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첫 번째 주저에서 시도했던 방법론을 ‘첫 번째 방법(the first way)’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주저인 『이론적 사고에 대한 신비판』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1953-57)에서 그가 시도한 방법론은 ‘두 번째 방법(the second way)’이라고 부른다 (Dooyeweerd, 1953). 전자에서는 도여베르트가 철학의 정의, 즉 의미의 총체성에 관한 탐구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사고의 종교적 뿌리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의 정의에 대해 비기독교 철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후자, 즉 이론적이고 학문적 사고 자체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선형적 근본이념을 통해 종교적 뿌리 및 기원으로 나아갔다. 첫 번째 주저는 네덜란드어로 출판했지만 두 번째 저서를 영어로 출판한 이유도 더욱 넓은 학자들과 대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도여베르트가 교수직에서 은퇴할 때 ‘철학과 기독교 (Philosophy and Christianity)’라는 기념 논문집이 그에게 헌정되었다. 이 책에 기고한 스위스 철학자 리차드 크로너(Richard Kroner)는 “이제 우리는 모든 철학적인 작업이 문화의 배경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그 문화는 본질에서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Wir wissen heute zu gut, dass alles Philosophieren sich auf dem Hintergrunde einer Kultur abspielt, die wesentlich durch ihre Religion bestimmt ist..)”고 말했다(Kroner, 1965: 11). 이것은 신앙과 학문 간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노력한 도여베르트 사상의 핵심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여베르트는 카이퍼의 사상을 발전시켜 독특한 기독교 철학을 정립하면서 학문적 사고는 결코 종교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음을 명쾌하게 보여주었다. 클라우저 또한 이론적 사고가 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화와 같다고 주장한다(Clouser, 2005, 홍병룡, 2019).

## 5. 완성: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완성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신앙과 학문의 통합 또한 완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 예를 든다면 동방박사를 들 수 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다. 이처럼 학문과 신앙이 통합된 그들은 당시 대부분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과는 분명히 달랐다. 마침내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큰 비용을 들여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하는 동시에 가장 귀한 예물까지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마 2:1-11) 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인 동시에 어쩌면 기독교 학자들의 귀한 모범일 수도 있다고 필자는 본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이며 사람들도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말한다. (계 21:24, 26) 이것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 땅에서 연구한 모든 학문이 신앙과 통합될 때 그것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중세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얀 판 에이크(Jan van

Eyck, 1390–1441)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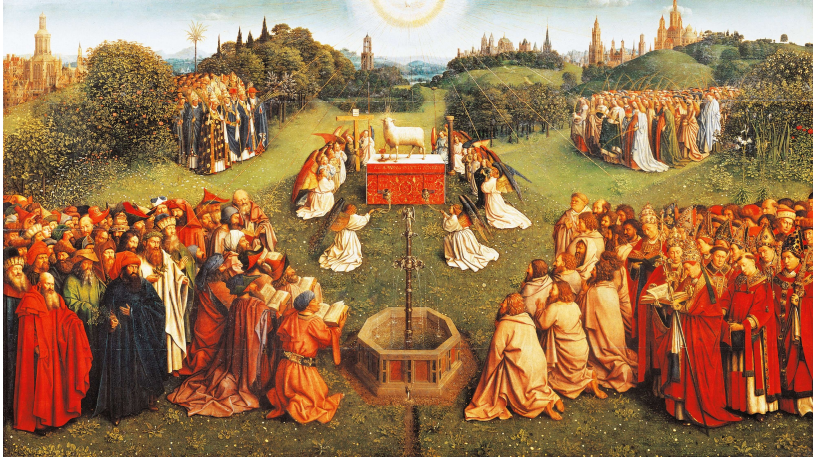


Figure 2. The Adoration of the Mystic Lamb painted by Jan van Eyck  
(<https://media.cntraveler.com/photos/57f66c4fed4dcfe84d3222a3/master/pass/GettyImages-148274647.jpg>)

### III. 결론

지금까지 도여베르트가 학문이 신앙과 어떻게 통합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의 네 요소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기에 학문은 그 창조 질서를 재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인간의 활동이었다. 이것을 도여베르트는 세 가지 선형적 기본 이념과 양상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러한 학문 활동은 신앙과 분리되었고 인간은 자신을 위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으나 이것은 결국 창조주를 향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기모순과 배움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도여베르트는 이것을 한 양상의 절대화를 통한 환원주의 및 사상의 우상화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학문은 거듭난 지성을 통해 새롭게 신앙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여베르트 또한 각 양상의 영역 주권 및 보편성 그리고 개체 구조를 설명한 후 이론적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 분석하여 결국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다시금 창조주를 지향할 때 올바른 통합이 가능하며 과학과 기술도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통합의 과정도 온전해져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석으로 장식된 것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이처럼 도여베르트의 사상은 계속해서 많은 후계자를 낳게 되어 이들이 모인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는 [alloflifereedeemed.co.uk](http://alloflifereedeemed.co.uk)가 있다. 또한, 정치학에서는 스킬런(James Skillen), 예술 분야는 로크 마커(Hans Rookmaker)와 지어벨트(Calvin Seerveld), 경제학에서는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 기술 분야는 반 리센(Hendrik van Riessen)과 스흐르만(Egbert Schuurman)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젊은 기독교학자들이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포럼 C(ForumC)가 있으며 독일에는 마르부르크(Marburg)에 있는 신앙과 학문연구소(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가 같은 비전으로 사역하고 있다. 영국에는 리즈(Leeds)에 [thinkfaith.net](http://thinkfaith.net)이 있어 젊은 기독교학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사고가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탐구하며 미국의 칼빈대학교(Calvin University)의 칼빈기독교학문센터(Calvin Center for Christian Scholarship)는 교수들의 통합 연구를 지원하고 텍사스의 베일러대학교(Baylor University)에도 신앙과 학문연구소(Institute for Faith and Learning)가 활동하고 있다. 기타 미국의 카이퍼 대학(Kuyper College), 돌트대학교(Dordt University), 워싱턴에 공적정의센터(The Center for Public Justice), 코벤넌트대학(Covenant College), 토론토(Toronto)에 있는 기독교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리디머대학교(Redeemer University) 등이 있다.

국내에도 적지 않은 기독교 대학들과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를 중심으로 여러 기독교 학자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신앙과 통합하려고 노력하면서 학술지 <신앙과 학문>도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특히 기독교 소장 학자들에게 확산하는 동시에 도어베르트의 이러한 귀중한 사상적 유산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연구 업적이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서울: 다함.
- [Park, T. H. (2020). Abraham Kuyper's Sphere Sovereignty: God's Sovereignty to All Spheres of Human Life.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1899).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다함.
- [Park, T. H. (2021).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Christian Worldview Manifesto for Cultural Transformation.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899).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임원주 역 (2017). 일반 은혜: 타락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1권,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Kloosterman, N. D. Trans. (2015).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Kloosterman, N. D. Trans. (2011). *Wisdom &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 Art*. Christian's Library Press. 서울: 부흥과 개혁사.
- [Lim, W. J. (2017).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Vol. 1, Seoul: Revival & Reformation Press. Trans.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Kampen: Kok. Kloosterman, N. D. Trans. (2015).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Lexham Press. Kloosterman, N. D. Trans. (2011). *Wisdom &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 Art*. Christian's Library Press]
- 최용준 역 (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세계관적 접근, Harris, R.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Eugene, OR: Cascade. 서울: 예영.
- [Choi, Y. J. (2013).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Seoul: Jeyoung. Trans. Harris, R.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Eugene, OR: Cascade]
- 홍병룡 역 (2019).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Clouser, R. A. (2005).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An Essay on the Hidden Role of Religious Belief in Theorie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서울: 아바서원.
- [Hong, B. R. (2019).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Seoul: Abba Press. Trans. Clouser,



- R. A. (2005).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An Essay on the Hidden Role of Religious Belief in Theorie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황영철 역, (1981). 기독교인의 세계관: 기독교 철학 개론. Kalsbeek, L. (1975).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Zylstra, B & J. eds. 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0).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Proeve van een christelijke filosof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서울: 평화사.
- [Hwang, Y. C. (1981). *Worldview of Christian: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 Philosophy*. Seoul: Peace Press. Trans. Kalsbeek, L. (1975).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Zylstra, B. & J. eds. 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0).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Proeve van een christelijke filosof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 Bavinck, H. (1897). Rapport van prof. dr. H. Bavinck over het rapport van deputatn voor de opleiding, voor zooveel handelend over het verband der kerken tot de Vrije Universiteit, in Acta der generale synode van de Gereformeerde Kerken in Dederland, gehouden te Middelburg, van 11 aug. to sept. 1896 Leiden: D. Donner.
- Choi, Y. J. (2000).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 Dooyeweerd, H. (1935–1936).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I–III. Amsterdam: H. J. Paris.
- \_\_\_\_\_. (1953–1958).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I–IV,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_\_\_\_\_. (1949). *Reformatie en Scholastiek in de Wijsbegeerte*. Franeker: T. Wever.
- Harris, R. A. (2014). *Faithful mind, thoughtful faith: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Tustin, CA: VirtualSalt.
- Kroner, R. (1965). *Philosophy and Christianity; Philosophical essays dedicated to Professor. Dr. Herman Dooyeweerd*, Kampen: J.H. Kok and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Russell, R. (2020). *Christian Philosophy Diagrams*. Bristol: All of Life Redeemed.
- Stellingwerff, J. (1992). *D.H.Th. Vollenhoven (1892–1978): reformator der wijsbegeerte*. Baarn: Ten Have.
- Van der Hoeven, J. (1987). *Matters of mission and transmission: On the Progress of*

Ecumenical-Reformational Thought, *Philosophia Reformata* 52, 137-138.

Van Woudenberg, R. (1992). *Gelovend denken: Inleiding tot een christelijke filosof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최용준 (2019).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4), 185-206.

[Choi, Y. J. (2019). A Reflection on Consummation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Based on Revelation 21:1-4. *Faith & Scholarship*. 24(4), 185-206.]

최용준 (2005).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37-66.

[Choi, Y. J. (2005). Herman Dooyeweerd: a philosopher who established the Christian philosophy as a transformational philosophy. *9 Philosophers who loved God*. Seoul: IVP.]

allofliferedeemed.co.uk

brill.com/view/journals/phir/84/2/23528230\_084\_02\_s001\_i0001.jpg

thinkfaith.net

www.researchgate.net/profile/Andrew-Basden/publication/266279899/figure/tbl3/AS:669554795618304@1536645711017/Absolutization-of-Aspects-and-Harm-that-Results.png

media.cntraveler.com/photos/57f66c4fed4dcfe84d3222a3/master/pass/GettyImages-148274647.jpg  
1.bp.blogspot.com/-hrLqdaqxyAg/WiRmgPzxXeI/AAAAAAAAFo4/HTNcyZe\_fKYprS3BCt94jaDykMSlkLjswCLcBGAs/s1600/modal\_aspects\_4.jpg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Faith & Scholarship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focusing on the thought of Herman Dooyeweerd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기 위해 어떻게 시도했는지 고찰한다.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를 계승하여 학문은 중립적이 아니며 신앙과 통합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위 '이론적 사고에 대한 선험적 비판'으로 설명했다. 창조주께서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기에 학문은 그 창조 질서를 재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인간의 활동인데 도여베르트는 이것을 세 가지 선험적 기본 이념과 양상 이론을 통해 밝힌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학문 활동은 신앙과 분리되었고 인간은 자신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나 이는 결국 자기모순에 의해 여러 문제를 낳게 된다. 그는 이것을 한 양상의 절대화를 통한 환원주의 및 우상화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학문은 거듭난 지성을 통해 새롭게 신앙과 통합할 수 있다. 도여베르트는 각 양상의 영역 주권 및 보편성을 설명한 후 이론적 사고가 대립과 종합을 통해 가능함을 분석하여 결국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다시금 창조주를 지향할 때 올바른 통합이 가능하며 과학기술문명도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통합의 과정도 온전해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석으로 장식된 것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이다. 결론에서는 도여베르트의 이러한 사상이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어떻게 발전되었고, 그의 유산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논의한다.

주제어: 헤르만 도여베르트, 신앙, 학문, 통합, 기독교 세계관